

뺨통 더위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 '블랙아웃' 오나

7월 평균 최대전력 8만2007MW...지난 7일 9만2990MW 치솟아
공급예비율 7%대로 약 3년 만에 최저...다음주 최대전력 수요 예상

지난달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공급예비율은 한때 7% 초반대까지 떨어져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다음 주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어 올여름 전력수급 관리에 있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공급예비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지난해 동월보다 1.0% 증가한 8만2007MW(메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

간의 전력수요이며,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월평균 최대전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해 7월의 8만1158MW였다.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 MW 선을 넘은 것은 2018년 8월(8만710MW)과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 번째다.

지난달 7일에는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990MW까지 치솟아 기존의 최대 기록인 2018년 7월 24일 오후 5시의 9만2478MW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며 냉방 가동이 늘기도 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른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예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좁히는 10% 선도 3차례나 깨졌다.

공급예비율은 지난해 5일 9.5%, 6일 8.7%에 이

어 7일에는 7.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일의 공급예비율은 2019년 8월 13일(6.7%)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달 7일에는 공급예비율도 6726MW까지 떨어지면서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에 근접했다.

공급예비율이 5.5GW(기가와트·5500M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데 2013년 8월 이후에는 9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공급예비율 수준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3단계는 '주의'(3.5GW 미만), 4단계는 '경계'(2.5GW 미만), 5단계는 '심각'(1.5GW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올여름 전력수급의 최대 고비는 내주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말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

를 이달 둘째 주로 전망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워 최대전력 수요가 91.7-95.7GW에 달하면서 지난해(91.1GW·7월 27일 기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급예비율은 5.2-9.2GW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공급예비율도 5.4-10.0%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당초 내주로 전망했던 최대 전력 수요와 공급예비율은 이미 지난해에 깨진 만큼 내주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해 비상경보가 발령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소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다면 가정과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절약 노력 및 기업의 직원 휴가 분산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사 등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베케이션플레이션' 추세에도 해외여행 급증... 고객 잡기 나선다

〈베케이션+인플레이션〉
광주은행, 여름 환전 페스티벌 등
여행 관련 금융상품 가입 고객 ↑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고 이에 따라 여행지 불가 부담도 커지는 '베케이션플레이션' (베케이션+인플레이션) 추세 속에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소비가 늘고 있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환전 고객 수는 1142명으로, 전년 같은 달(418명)보다 173.2%(724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환전 고객 수는 총 432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551명)보다 69.5%(1772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 등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은행의 환전 고객은 올해 1월 540명에서 454명(2월)→599명(3월)→720명(4월)→868명(5월)→1142명(6월) 등으로 늘고 있다.

광주은행이 일상 회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해 새롭게 내놓은 여행 관련 금융상품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적금' 가입자 수는 올해 5월 들어 많이 늘어났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제휴 맺은 여행업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카드 이용 때 금리를 더 받거나 환전 때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적금' 가입자는 1113명으로, 전달(308명)의 3.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금액도 4만432달러에서 11만4348달러로, 182.8%(7만3916달러) 늘었다.

이 적금은 지난 2019년 말 출시된 이후 상반기 기준 신규 가입 고객이 2583명(2020년)→3078명(2021년)→3224명(올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여행 수요는 지역민들의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가 코로나19로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무안국제공항에서 2층에 마련된 외화 자동입출금기(ATM)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카드 지출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 개인 신용카드 이용통계를 보면 올해 4월 지역 여행사·자동차 임대 업종 신용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 이용금액은 광주 3억8600만원·전남 4억4000만원 등 8억2600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3%(7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달(6억9600만원)보다는 18.7%(1억3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해외 여행길이 점차 열리면서 광주은행은 오는 9월30일까지 환율 우대 행사 '2022 여름 환전 페스티벌'을 연다. 적용되는 우대 환율은 미국 달러·일본 엔화·유럽 유로화 70%, 중국 위안화 30%

등이다.

'여행스캐치 외화적금V' 가입 고객이라면 신청 금액 제한 없이 40-80%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앞두고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여행 왕복 항공권 무료 추가 이벤트'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또 이달 3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광주카드 등 8대 행사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할 선착순 20만명에게는 베트남·일본 등 왕복 항공권이 걸린 '역대급 100% 당첨 스크래치 경품 쿠폰'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2분기 대형소매점 매출 역대 최대

백화점 3곳 18%↑ ...매출 이끌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백화점 매출이 전년보다 18%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기준 대형소매점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지역 대형소매점 경상금액은 광주 4737억원·전남 192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1%(395억원)·0.3%(6억원) 증가했다.

전국 대형소매점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7.7%(16조6000억원→17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2분기 기준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관련 통계를 낸 2015년 이후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5

년 2분기 4142억원이었던 매출액은 같은 기간 기준 4103억원(2016년)→4157억원(2017년)→4137억원(2018년)→3925억원(2019년)→4083억원(2020년)→4343억원(2021년) 등을 나타냈다.

광주 백화점 3곳 매출은 올해 2분기 2885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2442억원)보다 18.2%(443억원)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 역시 2분기 기준 2015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았다.

광주 11개 대형마트들의 2분기 매출은 1852억원으로, 전년(1901억원)보다 2.6%(-48억원)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4분기(-3.2%), 올해 1분기(-6.3%), 2분기(-2.6%) 등 3분기 연속 전년 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aT,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 28일까지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28일까지 '2022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다.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aT가 확보한 주요 농산물 45종 가격을 예측하는 양질의 모형을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가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16일 오후 4시에는 대회에 대한 설명회를 유튜브 브로 생중계한다.

예선은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본선은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5일에 개최된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본선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팩토리(aifactory.spa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2.25 (+0.75)
↑ 코스닥	807.61 (+3.99)
↑ 금리(국고채 3년)	3.081 (+0.072)
↑ 환율(USD)	1304.00 (+4.90)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리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